

광주·전남 국고예산 어떻게 돼가나

‘한푼이라도 더~ 확보’ 사활 걸었다

국회 상임위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고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 광주 미반영 주요 예산
방사광가속기 50억
도시철도 2호선 122억
송정역 환승센터 200억

- 전남 미반영 주요 예산
F1 운영비 300억
수출양식어장 240억
R&D산업 243억

240억원, 섬지역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 23억원, 실감미디어 R&D산업 기반구축 243억원, 한옥마을 주변 경관사업 20억원 등은 전남도가 사활을 걸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국내 개발 사료작물 종자보급센터 설치(16억원) ▲전북 양식산업 연구센터 건립(10억원) ▲해삼 양식산업 연구센터 건립(10억원)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개설(100억원) ▲공동혁신도시 북측 진입도로 개설(28억원) ▲한옥건축박람회 개최(20억원) 등 모두 23건의 주요예산은 국회에서 살려내야 할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25억원) 요구→12억5000만원 반영)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149억원→39억원)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 시스템 기반 구축(60억원→15억원) ▲서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 기반 구축(50억원→35억원)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건설(1000억원→760억원) 등 8건의 주요예산은 국회에서 추가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전남=정부안에서 누락돼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주요예산 F1 코리아그랑프리 개최 지원 300억원, 수출양식어장(양식식) 조성

광주=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설치 사업 50억원, 응집·접합지원 시스템 구축 3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22억원, 광주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시범사업 200억원,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 설립 120억원 등은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나 정부 최종안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UN대학 부설연구소 유치(20억원) ▲문화산업 투자진흥기금 조성(452억원) 요구→50억원 반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1000억원→576억원) ▲43D융합산업 육성사업(160-억원→15억원) ▲클린디젤 자동차핵심 부품산업 육성(250억원→100억원) ▲2015 광주하계U대회 개최 지원(432억원→234억원) 등 7건의 주요예산 항목은 증액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다.

전남=정부안에서 누락돼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주요예산 F1 코리아그랑프리 개최 지원 300억원, 수출양식어장(양식식) 조성



‘2011 지역신문 프리 컨퍼런스’가 3일 광주 힐데이 인 호텔에서 언론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남식 미래학회 회장이 ‘신문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있다. /최현백기자 choi@kwangju.co.kr

“지역언론도 태블릿 PC 뉴스 눈들려야”

2011 지역 신문컨퍼런스 성황

지역 언론인들의 축제 ‘2011 지역신문컨퍼런스’가 프리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3일부터 이틀간 광주시 서구 치광동 ‘힐데이 인 광주’ 호텔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최창섭)와 광주일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사 및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지역신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프리 컨퍼런스’에는 전국 지역언론 발행인, 언론학 교수, 언론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창섭 위원장은 모두발표를 통해 “한국 지역 언론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사고와 로컬적 행동양식을 갖춰야한다”고 역설하고 “지역 언론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이념과 철학을 재정립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토 저널리즘에 더욱 헌정, 토착화를 이루는데 지역언론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초빙연사로 나선 이남식(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중·장기 미래는 ‘지역신문의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중·장기 미래의 위기는 한국의 신문들이 자초한 결과’라며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태를 위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신문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 모바일 시장에서 뉴스의 유료화 정책 도입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의 뉴스 콘텐츠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 ▲ 전통적인 신문 제작에 디자인을 과감히 도입하는 예술적인 지면제작방식 도입을 주문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새로 출범한 제 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비전을 발표하고 우선 지원

대상 지역신문사 사장단으로부터 위원회에 바라는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컨퍼런스 이틀째인 4일에는 오후 1시부터 스마트시대의 미디어전략과 보도 및 편집, 독자친화형 신문제작 및 지역공헌, 경영·광고·조직혁신 4개 분야 12개 세션으로 나눠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광주일보의 ‘우리가 품어야 할 다문화가족’을 비롯 30개(일간 15개사, 주간 15개사) 신문사에서 42건의 사례를 발표한 뒤 토론을 나눈다.

김희현기자 kih8@kwangju.co.kr

중소 FTA 대응 능력 키운다

신규사업 발굴 등 전남 지원센터 개소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FTA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전남도 FTA 활용지원센터’가 3일 오후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오주승)에서 개소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FTA활용지원센터는 앞으로 ▲ 지역 FTA활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물 발간·배포 ▲ FTA 설명회 개최 ▲ FTA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원산지관리사 자격취득 지원 ▲ 전남지역 FTA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 수출입 중소기업의 FTA

대응 및 활용능력과 해외시장 개척 기회 확충 등 FTA관련 모든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FTA 활용지원센터는 기획재정부와 전남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FTA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면서 부단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면 FTA 과고도 거뜰히 극복해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FTA활용지원센터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FTA 활용지원센터가 3일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오주승·오른쪽 두번째)에서 개소식을 열고 전남 중소기업의 FTA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들어갔다. (전남도 제공)

센터는 이날 개소식과 함께 광주 무역학과 교수들을 초청했다. 협의회는 FTA활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와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출입 중소기업 의견 수렴 역할을 하게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부상저축’가 따로 없군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건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불면의 원인을 크게 다섯가지로 나눈다.

- (1) 사려과다(思慮過多)
생각을 과하게 하여 비장(脾臟)과 심장(心臟)이 손상되어 피(血)를 소모시키는 경우이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부인의 산후나 오랫동안 병을 앓은 환자, 노인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때는 꿈이 많고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잊어버린다. 또 입맛이 없거나 몸이 권태롭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곤해 한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다.
(2) 음허화동(陰虛火動)
장기간 영양부족이 지속되거나 오랜 병, 여성호르몬의 부족, 지나친 성교로 신장(腎臟)의 기능이 손상되어 상화가 위로 올라와 심장의 화를 자극하므로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으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마른다. 발바닥이 뜨겁거나 변비가 생기며 간혹 몽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 (3) 심담허겁(心膽虛怯)
몸이 겁이 많거나 크게 놀란 후에 심장과 담이 약해져 발생한다. 이때는 가슴이 심하게 뛰고 매사에 잘 놀라며 평소에도 무서움이 많아 혼자 있기 싫어하거나 불안 초조감이 많이 나타난다. 자는 동안에도 꿈이 많고 쉽게 깨는 것이 특징이다.
(4) 간양상행(肝陽上亢)
스트레스 특히 분노를 오래 참는 것으로 인해 간경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성격이 조금하고 쉽게 화를 내며 눈이 충혈되고 입이 쓰며 갈증이 난다.
(5) 위중불화(胃中不和)
음식을 잘 조절해 먹지 않아 소화불량이 되어 명치끝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히 눕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변이 시원치 않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다.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등에서 볼 수 있다.

잠들기전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 중에 5회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 또는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경우 등은 불면증을 의심하여야 한다. 불면증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수면이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불면증은 ‘입면장애’, ‘수면유지장애’, ‘조기각성’으로 분류한다. 입면장애는 잠들기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말하며, 수면유지장애는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중에 5회 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조기각성은 전체 수면이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수면의 기운을 기의 운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가 낮아는 인체의 밤을 순행하므로 잠이 오지 않고, 밤에는 기가 인체 안으로 들어감으로 잠을 자게 되는데 불면증은 이러한 정상 생리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불면증 치료

생각이 많아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몸이 피곤할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피로를 풀어줘야 하고, 신체중성이 심한 경우는 대증치료를 통해 신체중성을 우선 개선 시켜준다. 만약 정신질환의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먼저해야하며, 노인인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줌과 동시에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을 주로 활용한다. 한방 약물요법으로는 사려과다로 오는 경우는 귀비탕, 울허 화동으로 오는 경우는 청심언자탕이나 가미소요산, 심담기허로 오는 경우는 가미 온림탕을, 위중불화로 오는 경우는 향사영위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처방이다. 일반적인 통용방(通用方)으로는 산조인탕을 사용한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진료 안내: 환병 / 스트레스 질환
진료 시간: 평 일: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경희한의원

침·뜸·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